

권두언

##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성인경 (한국라브리 대표, 세계관운동 강원/원주 지역 대표)

### 손을 씻는데도 세계관이 있을까?

이상한 질문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손을 씻는 데도 세계관이 있다. 한국 남자들은 소변을 보기 전에 손을 씻을까? 아니면 볼일을 보고 난 후에 손을 씻을까? 한국 남자들은 씻는다고 한다면 볼일을 보고 난 후에 손을 씻지, 그 전에는 씻는 일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떨까? 유대인들은 반드시 볼일을 보기 전에 손을 씻는다. 신기하고 우리의 가치관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이유를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주신 것 중에 가장 귀중한 선물을 '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우리 '몸' 중에서도 가장 귀중한 선물을 바로 '생식기'라고 한다. 이것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행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게 귀한 몸에 손을 대기 전에, 먼저 더러워진 손을 씻고 볼일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보니, 한국인들의 순서에 대해서도 시뭇 궁금해지는데 아마도 불교에서 온 세계관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한다. 불교에서는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몸이라고 한다. 또한 그 몸 중에서도 더 더러운 것이 생식기라고 여긴다. 그래서 불심을 깊이하기 위해서는 생식기능을 멈춘다. 가능한 안 먹고, 배출하지 않고, 억제한다. 오랫동안 우리나라

의 문화에 영향을 끼쳐온 불교의 사상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활에 배여서 우리는 더러운 몸, 그 중에서도 더 더러운 생식기를 만진 다음에야 손을 씻는 것이다. 조상들의 가치관이 그대로 우리에게 무의식적으로 전래된 것이다.

이렇듯 손 씻는 것조차도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세계관이 반영됨을 알 수 있다. 모든 문화의 배후에는 세계관이 있다. 어떠한 말을 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복장, 음악, 영화, 음식, 행동 등을 분석해 보면 세계관이 나온다. 세계관은 크게 기독교 세계관과 비기독교 세계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 첫째, 기독교 세계관은 참 진리(true truth)이다.

기독교는 객관적으로도 진리이고, 체험적으로도 진리이다. 연약한 우리들은 하나님을 체험하며 이성적으로 이해하기를 원한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체험적인 것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다면, 그 증거를 보여 달라"고 말한 반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원했던 헬라인들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다면, 우리를 설득하여 이해시켜 달라"고 말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편에 계신분이었을까? 예수님께서서는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에도 YES가 되셨고, 헬라인들이 구하는 논리에도



YES가 되셨다. 구약의 진리는 체험적 진리로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반면, 신약의 진리는 논리적 진리로 표현되고 있다(행 26:25). 기독교는 설명할 수 있으며 합리적이다.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가르칠 수 없다. 참된 진리란 체험적이고 논리적인 진리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참된 진리라고 하는 것이다. 성경은 1)절대적 진리, 2)현실적 진리, 3)알 수 있는 진리, 4)실천할 수 있는 진리, 5) 명제적 진리(propositional truth)이다.

성경은 우리 모든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진리이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착각한다. '성경은 내게 누구랑 결혼해라, 어느 웨딩홀에서 하라 이런 것까지도 다 알려줄 거야' 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런 세부적인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 진리가 아니다. 결혼을 예로 든다면 성경은 두 가지 원리를 알려준다. 믿는 사람과 결혼하라, 이성과 하라는 것이다.

**둘째, 기독교 세계관은 영적 분별력을 키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한국 교회는 전반적으로 직통 계시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다.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하지 않고 꿈, 환상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한다.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

하도록 하라" 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분별하라' 는 것은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라' 는 것을 뜻한다. 세상의 잘못된 유행에 동화되지 말고, 생각을 바꾸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라는 것이다.

제임스 패커는 그의 저서 「성령님을 아는 지식」에서, '예수님을 더 깊게 믿고, 성령님을 더 의지할수록 우리의 사고방식은 더 성숙해진다. 성령을 많이 만나게 되면 생각이 반듯해지고, 분별력이 확실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분별하게 된다' 고 말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직통 계시만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것만을 구하곤 한다.

**셋째, 기독교 세계관은 시대를 꿰뚫어 볼 줄 아는 비판력이다.**

기독교세계관은 시대를 꿰뚫어 볼 줄 아는 비판력으로(고후 10:5),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데올로기를 파하고 무너뜨리는 것이다. 잘못된 이데올로기들을 무너뜨리고 올바른 이념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다.

**넷째로, 기독교 세계관은 지혜이다.**

구약에는 세 가지 지혜가 나온다.

- 1) 샤칼(sawkal): 신중하게 이지적으로 지혜로운 것. 아주 똑똑한 것.

2) 호크마(khokmaw): 재치 있는 지혜, 피가 많고 순발력이 있는 지혜

3) 레브쇼미아(lebshomeah): 잘 듣는 귀, 잘 듣고 순종하기.

이 중 지혜의 왕 솔로몬은 하나님께 어떤 지혜를 구했을까? 바로 세 번째 지혜이다. 이것은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한다.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상대방의 말을 잘 안 듣고 말만 많이 한다. "60분 강의가 있으면 55분 듣고 5분 말하라"라는 말이 있다. 잘 듣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다.

#### 다섯째, 성령의 생각이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이라고 하면 은사와 능력을 생각한다. 하지만 로마서를 보면 은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강조하면서 성령의 생각대로 쓰라고 말해주고 있다. 성령의 생각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성령의 생각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각이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롬 8:5-7)"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성령님의 생각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따분한데 좀 야한 이야기나 할까? 벗기기는 미학이다, 결혼하기 전 동거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준비다, 결혼은 일생일대의 투기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고 취향이다, 사랑하면 육체적 혼전은 어떤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민되십니까? 이는 모두 죄이다. 그런데 이 사회는 이런 담론이 유행하고 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 여섯째, 기독교 세계관은 통합적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다.

이것은 학문적인 부분으로 설명하자면, 범학문적 연구를 말하는 것이다. 각각의 전공분야가 뿔뿔이

흩어져 연구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로 꿰뚫을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이다. 모든 분야를 꿰뚫는 지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각 대학마다 통섭과정(지식의 통합)을 만들고 있다. 핵심은 경제 논리, 섹스 논리 등 상대적 진리관에 의해서 통섭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운동을 먼저 해야 했고, 지금이라도 열심히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다면 이 과정은 반드시 성경을 기초로 한 통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절대적 진리를 기초로 해서 모든 학문을 꿰뚫어 보는 작업을 해야 하며 통합적 사고와 공부 방법을 익혀야 할 것이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고후 10: 4-6)"

여기서 능력이란 성경을 지칭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성경 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을 무너뜨릴 수 있다. 성경을 기초로 비판하고, 잘못된 모든 생각을 바로잡아 간다면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므로 결국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할 것이다.